



5면

지역농업 발전·관광 활성화 동행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음 10월 22일) 제3397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난 1일 전주시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출범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돌입

'전북도민들의 사랑 나눔 어려운 이웃에 온기가 가득'

전주 오거리 광장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목표액 1160억1000만원...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전주시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62일간의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 도민들의 소중한 성금을 온도로 표현해 모금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전주오거리 광장에 설치됐다.

모금 목표액의 1%(인 1억 1610만원)이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는 1도씩 올라가게 되며 모금된 성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게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나눔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목표액은 116억1,000만원이다.

나눔캠페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방송사 또는 신문에 개성된 이웃돕기 모금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ARS(060-700-

0606)를 통해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우리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 졌다.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성금은 위기가구와 사회복지 시설 등에 소중한 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매년 연말이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정과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 희망나눔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신 사회문제 대응지원, 안전한 일상 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자립 역량 강화 지원'을 4대 지원 분야로 설정해 나눔으로 함께 만드는 하나되는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자도 성공 출범 공동 결의

시도지사협,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적극 협력키로
이철우 회장 "전북특자도, 지방분권 시범 모델이자 지표될 것"

전북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통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이 지역 주도의 자립적 발전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길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협력키로 공동결의했다.

공동결의문을 통해 17개 시·도지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에 적극 앞장설 것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 △특별자치도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각종 규제 개선사항을 시범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 △지

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 등 4가지 사항에 적극 협력해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로 다짐했다.

이번 공동결의문 채택은 지난 10월 27일 경북 안동에서 개최한 제57차 협의회 총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24년 1월 시행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8개의 선언적 조항만 있다며,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지표가 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17개 시도가 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건의한 이후 맺은 결의이다.

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부여되는 특례는 국가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향후 모든 시·도에 적용될 지방시대 분권의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7개 시·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지하며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지지와 결의가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를 향한 강한 의지와 새로운 지방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하게 되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전 도민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정부, 조류 인플루엔자 고위험
전북 등 6개 시도 합동점검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북, 전남,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등 고위험 지역 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1~3일 서해안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행안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 합동으로 7개조 21명을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실시했다.

정부는 이날부로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지난달 30일 을 겨울 들어 처음으로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AI(H5N1형)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도 AI의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조종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방역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뉴스

전북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지역구 평균 2억5500여만원
비례는 52억8000여만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5,500여만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남원시일실금순창군 3억4,300여만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익산시를 1억 9,100여만원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0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지역구국회

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00여만원, 비례국회의원선거는 3억 9,400여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13.9%)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북선관위는 향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자연이 주는 휴식~
Healing의 시작!

장수여행

발길 닿는 곳마다 자연이 주는 넉넉함과 정겨운 미소,
포근한 인정이 넘치는 장수로 오세요!

장수군
JANGSU COUNTY